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풀가동’… 추가 성장동력 확보 속도

삼성전기 상반기 패키지솔루션 매출 1.4조·영업익 1602억 집계
고부가 제품, 차세대 유리기판 확대

LG이노텍

매출 9356억·영업익 996억 기록
내년 AI 가속기·서버용 시장 진입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부품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이 사실상 풀가동에 들어갔다. 양사는 반도체 기판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 가동률은 89%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69.8%에서 19.2포인트 상승했다. LG이노텍의 반도체 기판 라인 가동률도 지난해 80.8%에서 올해 상반기 94%까지 높아졌다.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와 AI가속기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기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AI 반도체가 고성능화할수록 이를 받치는 기판도 대면적·고다층화하면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적도 개선됐다. 삼성전기 패키지솔루션

사업의 상반기 매출은 1조49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0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LG이노텍도 매출 9356억원, 영업이익 996억원을 기록해 각각 18%, 93.8% 증가했다. 양사의 패키지솔루션 영업이익률은 나란히 10.7%를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기존 FC-BGA·적층세라믹콘터(MLCC)의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차세대 유리기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FC-BGA에서는 110mm 이상 초대면적·26층 이상 초고다층 기술을 확보했다. MLCC도 제한된 생산 능력을 AI 서버와 전장용 고부가 제품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유리기판은 핵심 소재부터 내재화한다. 삼성전기는 일본 스미토모화학그룹의 국내 자회사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JV) ‘글라셈(GlaSSEM)’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글라셈은 유리기판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 생산을 맡는다. 삼성전기는 현재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와 유리기판 시제품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완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이노텍은 패키지기판 고객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카메라모듈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수의 반도체 기판으로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다. 상반기 패키지솔루션의 매출 비중은 8.5%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18.4%를 차지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북미 빅테크 고객사향 PC용 FC-BGA 대량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추가 고객사를 확보했다. 내년부터 AI 가속기와 AI 서버용 시장에도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북미 AI 고객사와 FC-BGA 장기공급계약(LTA)을 협상하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생산능력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 6월 베트남 하이퐁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증설에 나섰고 FC-BGA는 경북 구미와 베트남에서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LG이노텍은 패키지솔루션 매출을 지난해 1조7200억원에서 2030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AI 가속기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대면적·고다층 기판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고성능 기판은 생산 난도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양산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8·13 대책 공급목표 난항 금융·세제 정책 보완해야”

건설산업협 ‘8·13 대책 내용·평가’
명확한 공급 확대 방향성은 긍정적
선분양 구조, 수요 진작책 뒷받침 돼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급목표에 대해 사실상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물량·속도 확대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금융·세제 등 수요 진작 정책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종합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는 출범한 지난해에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과 올해 8·3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번 8·13 대책까지 다섯 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임기 내 수도권 147만호 이상(+α)이다.

기존 9·7 대책의 135만 호에 더해 2030년까지 1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하면서 연평균 목표는 29만4000호 수준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5만7000호, 도심 공급 확대 5000호, 민간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5만9000호 등이다. 임기 이후까지 고려하면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공공택지는 조성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영등포 등 신규 지구를 3~4년 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를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허윤경 건설연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량 확대와 속도 개선에 대한 시그널을 선

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내 수도권 147만호+α라는 명확한 공급 확대 기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수도권 연간 29만4000호라는 공급 목표치는 최근 실적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않다.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6만5000호에 불과하다. 사업기간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9·7 대책이 제시한 2026년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24.2%에 그친다.

최근 16년간(2010~2025년) 수도권에서 연 29만4000호 이상 착공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4개년에 불과했고, 2025년 착공 물량은 16만7000호로 목표치의 56.8% 수준에 머물렀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 평균(연 18만1000호)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

허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공급은 수요자 자금을 활용하는 선분양 구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개발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수요 진작책을 병행한 독일(연 40만 호)·영국(연 30만 호)도 공급 목표 달성률이 50~70% 수준에 그쳐 공급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 모두 행정절차 단축을 넘어선 과제가 남아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최초 부지조성공사 착공까지 인건계약은 약 40개월이 걸린 반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54~57개월이 걸려 지구별 편차가 컸다.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4월과 4월 10일 EOM 주관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로커 4년 연속 1위
*25년 KVI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주민통계서비스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출처: 당시 고객 데이터)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약(IMA)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지금으로 설정시 중도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약(IMA)은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산은 당사의 고유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B+/B- 순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약(IMA)은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